

캐나다의 대학진학지도 사례

이 정 규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대학진학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생 자신은 물론 학부모와 국가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교육적 전통에 기인하여 교육 방법과 열의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력을 증진시켜 보다 나은 삶을 구가하려는 욕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문제는 학생 자신의 미래의 값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상이한 교육제도를 지니고 있는 캐나다의 대학제도와 중등교육과정 및 대학진학지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먼저 캐나다의 고등교육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다음으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 BC) 주, 세미아무 중등학교(Semiahmoo Secondary School)의 교육과정과

대학진학지도 사례를 소개하고, 끝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학진학지도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캐나다의 고등교육 현황

캐나다의 교육은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연방 정부가 아닌 지방(province)이나 준주 혹은 지역(territories)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지난날의 교육부나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국가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없이 전적으로 지방정부 자치로 운영·통제되어 오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주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는 공립학교와 개인이나 재단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사립학교로 대별할 수 있고, 이들 고등교육기관들은 학위부여기관(degree-granting institutions)과 비학위부여기관(non-degree-granting institutions)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캐나다 고등교육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병존하지만 공립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공립대학이 법적으로는 주 정부로부터

“

이 글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상이한 교육제도를 지니고 있는 캐나다의 대학제도와 중등교육과정 및 대학진학지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다.

”

권한을 부여받고 재정을 지원받지만, 대학은 사립 대학과 같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고 학생과 교수와 직원을 선발하고 교과과정을 설정하고 입학허가 기준과 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대학행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고 또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고등교육은 위의 두 가지 형태의 기관이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학위부여기관은 4년제 대학으로서의 기능, 즉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발전에 주력한 반면, 비학위부여기관은 중등교육 후(post-secondary education)의 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 실업교육, 성인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다른 선진국보다 일찍 이룰 수 있었다. 양자 간에 지원자 성향도 달라서 전자는 대체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반면에, 후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적정 학업 기회를 상실한 적이 있거나, 혹은 기술이나 실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지난 세기 말에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인구 대비 고학력자 점유율에 있어서도 다른 선진국을 월등히 추월하였다. OECD(1998) 교육지표에 의하면, 1990년대 중엽에 이미 성인

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에 있어서 캐나다는 전체 성인 인구 중 40%로, 미국의 35%, 영국의 27%, 독일의 17%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학위부여기관 학교 수는 약 2배(현재 약 90여 개), 교수 수는 약 4,300명에서 약 35,000명으로 약 8배, 학생 수는 약 100,000명에서 840,000여명으로 8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학위부여기관 학교 수는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설립되어 현재 약 270여 개 학교에 약 600,0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 현재 이 두 가지 형태의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있는 총 학생 수는 약 14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고등교육 체제는 캐나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성취에 두 중심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 개발 차원에서 효율성을 배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대학간 우열의 격차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한스 슈에츠(Hans Schuetze)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연구와 학문의 실용화 내지는 응용화 추세, 국제화, 대학의 상업화는 대학간 경쟁을 심화시켜 대학 입학

의 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힘의 과정에 의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중등교육 역시 상급학교 진학에 각가지 묘수를 자아내고 있다.

Ⅲ. 캐나다의 중등교육과정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에서도 대학진학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곳 교육청과 지역 중등학교 교육자들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진학지도 프로그램을 구안·시행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광역지역의 서리(Surrey)시에 속해 있는 이 곳 세미아무 중등학교(Semiahmoo Secondary School : 재학생 1,700여 명)에서도 상급학교 진학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및 진학상담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대학진학지도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대학진학 문제는 교육제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에 이 장에서 먼저 캐나다의 중등교육제도와 교과과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각기 상이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중등 이하 교육 단계와 중등 이후 교육 단계를 구분하여 전자는 'Ministry of Education'에서 관장하고 있고, 후자는 '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교육 전반을 국가 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등 이하 교육과 고등교육을 이원화하여 주 정부의 두 행정부서에서 각기 관할하고 있다. 중등 이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산하에 하부기관으로 각 교육구청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의 초등 및 중

등학교는 각 구역의 교육구청 산하에 소속되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교육부(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는 모든 국·공·사립대학의 자율권을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와는 달리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등 이하 교육은 1년의 유치원 과정과 1학년 부터 7학년까지의 8년간의 초등교육 과정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단계와 8학년 부터 12학년까지 5년간의 중등교육 과정을 두고 있는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교육 단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8학년부터 시작되는 중등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의 대학처럼 학생들 개개인이 학교 교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수업은 지정된 강의실로 찾아가서 담당과목 교사에게 들어야 한다. 각 과목은 이수 학점이 부여되어 있으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과목과 학과 담당 교사를 자신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과목 수에 있어서도 1학기 와 2학기에 각기 다른 학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과과정을 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미아무 중등학교 9학년의 경우 1학기에는 총 4 과목으로 수학, 과학, 체육의 3가지 필수 과목과 도서관학과 같은 1가지 일반선택 과목을 택하도록 하고, 2학기에도 총 4개 과목으로 영어, 사회의 2가지 필수과목과 불어, 컴퓨터 기술(IT)과 같은 2가지 선택과목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수 및 선택과목의 이수도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과목 수의 가감이나 학기에 따라 과목을 조절 혹은 호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emiahmoo Secondary School, Course Selection Grade 9 & 10, 2003~4).

이러한 교과목의 선정은 학생 자신의 의사가 우선시되며, 수강신청 및 변경은 진학상담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성취도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세미아무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9학년부터 수학 과목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정규 수학 과목보다 정도가 낮은 기초수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한다든지, 11학년부터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관심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기술이나 일상생활, 예술 활동, 그리고 체육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중등교육 시작 연도인 8학년에 이르면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분야를 모두 약간씩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Semiahmoo Secondary School, Course Selection Grade 8, 2003~4). 이를 바탕으로 9학년부터는 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분야를 배우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중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욱이 11학년에 이르면 모든 학생들에게 장차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곧바로 사회에 나가서도 학생들의 전공 학문 분야나 사회생활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세미아무 중등학교에서는 취업교육부서(Career Education Department)에서 '취업준비 프로그램' (Career Preparation Program : CPP)과 'Co-Operative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 COP)'을 실행하고 있다. CPP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120시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COP는 1년 이상 240시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CPP에는 경영회계반(Business Education Accounting), 일반기계반(General Mechanics), 매체예술반(Media/Art), 목공반(Carpentry/Joinery), 실용인문반(Applied Humanities), 악기/음악반(Band/Music), 연극/영화반(Drama/Theatre), 요리반(Culinary Arts/Cafeteria), 과학반(Sciences), 목공반(Wood Products Manufacturing), 패션디자인반(Fashion Design), 건강학반(Health Science)이 있다(Semiahmoo Secondary School, Course Selection Grade 11 & 12, 2003~4).

일례로 연극영화반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11학년 및 12학년에서 무대 밴드 혹은 현악기 11학년과 12학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해당 분야 실무 경험(12A)과 재즈 합창 11학년 또는 12학년, 밴드 11학년 혹은 12학년, 재즈학 11학년 또는 12학년, 현악 11학년 혹은 12학년, 실무경험(12B), 그리고 콘서트 밴드 11학년 혹은 12학년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상계서, 8쪽).

그리고 대학진학지도는 11학년과 12학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8학년이 상급학교 준비를 위한 탐색기라면 9학년과 10학년은 잠정적인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진학지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부모이지만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교사가 학과목 선정과 변경에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인 진학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다.

Ⅳ. 대학진학지도 사례

대학진학지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행정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상담적 측면이다. 먼저 교육 행정적 측면으로는 교육구청의 행·재정적 지원하에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재량권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 각종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진작시키기 위해 성적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성적 우수 학생을 적극 유치·육성한다든지, 학기 동안 2~3회의 정기적인 교사와 학부모와의 면담 시간을 갖는다든지, 월 1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일 등이다. 학교는 뉴스레터를 통하여 학교의 중요 행사와 일들을 알릴 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들의 학업결과까지도 고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업 동기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상급학교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고무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질을 개발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 상담적 측면이다.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된 상담적 측면은 학과 선택에 관한 지도 상담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도 상담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학생들은 2학기 중후반기에(대체로 3월 말이나 4월 초) 다음 학년도 1학기 와 2학기 학과목의 수강 신청을 한다. 만일 수강을 원할 경우 학기 시작 전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에 상담교사를 만나 변경을 하고, 학기가 시작된 후에는 상담교사와 미리 약속 일자와 시간을 정한 후에 당일에 만나 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된 후 1달까지는 결원이 있는 학과목에 한하여 학과목 수강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일련의 절차는 우리나라의 대학수강 신청 및 변경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담당교수가 상담에 응하고 해당 학과목의 교수가 수강신청 변

경 용지에 서명을 하면 수강 변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상급학교 진학지도를 위한 상담교사의 역할은 학교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세미아무 중등학교에서는 6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다. 대학진학상담을 위해서 이 학교는 12학년 전담 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진학상담을 맡게 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영어나 일부 전공 분야 과목에 12학년 교과 이수를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1학년 학과목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지도는 주로 11학년과 12학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12학년 전담 진학상담교사(Ms. Law)를 만나기 위해 사전에 약속 일자와 시간을 정하고 학교를 찾아갔을 때, 실내에 있는 수많은 대학 진학 정보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대학의 자료는 물론 캐나다 전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책장에 가지런히 정돈해 놓고 있었다. 필자는 이 상담교사에게 학생과의 진학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진학 자료는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물어 보면서 그녀의 친절함과 자상함 그리고 진학문제에 대한 전문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상담교사는 하나하나의 물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내보이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들을 열어 보이면서 일일이 각 대학의 입학 관련 정보를 설명하여 주었다. 그녀에 의하면, 진학상담은 학생들에게 즉흥적이고 단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은 물론 앞으로 전공할 분야에 대한 장래성까지 서로 깊이 있게 논

“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눈을 세계로 돌려 선진 국가들의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에서 장점을 차용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진부한 교육의 틀을 바꾸고 교과과정을 개혁해야 한다.

”

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캐나다는 각 주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각기 다른 입학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중등학교의 진학상담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시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광역지역에 소재해 있는 S대학의 최근의 입학 요건을 소개하자면, 인문학 분야는 BC 주와 캐나다 국내 12학년생의 경우 최소한 78~82%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요구하며, 미국 학생은 최소한 GPA 3.2~3.3 이상 그리고 SAT 1200점 이상, ACT 26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학 분야와 응용과학 분야는 88% 및 85~94%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S대학의 인문학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11학년에서 영어 혹은 불어 11, 언어 11, 수학 11, 과학 11(물리, 화학, 생물, 지학, 삼림, 환경 중에서 1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12학년에서 영어 혹은 불어 12, 과학이나 사회 혹은 문학 부분에서 2개 과목(12학년), 그리고 예술 분야, 언어 및 인문학 분야, 과학 분야, 혹은 사회 분야에서 2개 과목(12학년)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대체로 학과목의 이수 요건은 해마다 별반 차이가 없지만 최소한의 학업성취도 요건은 매년 다른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학교마다 이러한 다양한 입학 요건과 해마다 변하는 기준으로 인하여 진학

상담교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대학진학지도 사례보다는 캐나다의 중등교육에서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필자가 여기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되어 있거나 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중등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우수학생 육성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캐나다의 고등교육 현황과 제도, 중등교육과정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세미아무 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진학지도 사례를 살펴보았다. 캐나다는 G8 국가의 하나로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에서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고등학력 인구가 많고 전문 인력이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최대 공립대학인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

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려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조치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학진학지도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눈을 세계로 돌려 선진 국가들의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에서 장점을 차용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진부한 교육의 틀을 바꾸고 교과과정을 개혁해야 한다. 교과과정을 대폭 손질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상하급 교육행정 당국과 일선 학교 교육행정 기들이 자신들의 권익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먼저 고려할 줄 아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졸속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해안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수 교과목의 선택권이 최대한 부여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다양화와 더불어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점차 대학식의 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부담이 된다고 결코 기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캐나다처럼 교과과정을 이분화하여 상급학교진학을 추구하는 학생과 직업교육을 갈망하는 학생이 모두 흡족하게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면서도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대학진학지도를

위한 적정 수의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여 수시로 혹은 장기적으로 진학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고,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일선 학교에 전문 진학상담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급학교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대학교육**

참고문헌

- OECD (1998).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Paris : OECD.
- Semiahmoo Secondary School (2003). Course Selection, Grade 11 & 12.
- Semiahmoo Secondary School (2003). Course Selection, Grade 9 & 10.
- Semiahmoo Secondary School (2003). Course Selection, Grade 8.

이정규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고등교육행정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대학행정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객원교수 및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 A Confucian Perspective,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등이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Christianity and Higher Education”, “The Role of Relig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등이 있다.